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HGIT Newsletter

2017년 제14호 가을호(9월)

발행인 조민호

편집장 구민희(32기)

편집위원

심요섭(33기), 박경현(34기), 왕홍소(34기),
임재민(35기), 이우석(35기), 오현정(35기),
김하영(35기)

2017년 9월 창간/14호

<http://tourism.hanyang.ac.kr/>

2017년 09월 05일 #1

글의 순서

1. 졸업생 학위수여식 & 36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 추계 해외답사 미리보기 - 일본 '북큐슈' 2박 3일
3. 교수님 인터뷰 코너 - 이훈 교수님
4. 문(文)정부 관광정책을 살펴보다.
5. 2017년도 황금연휴에 가기 좋은 국내 여행지 <추석편>
6. 승무원이 추천하는 가을에 가기 좋은 아시아나 취항지 - 홍콩
7. <신서유기>와 함께 떠나는 대륙여행
8. 명품 브랜드의 대표주자, 루이비통의 또 하나의 시도
- #1. 2017년도 전기 국관원 활동 모음집
- #2. 편집후기

☺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

1. 졸업생 학위수여식 & 36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글/구성 32기 구민희

안녕하세요. 32기 구민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5기 동안 고생하신 졸업생 선배님들의 생생한 학위수여식 현장 &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신입생 분들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입학 뿐만 아니라 졸업도 한 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졸업생 학위수여식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졸업생 선배님들의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8명의 졸업생 선배님들과 조민호 교수님, 김남조 교수님, 현성협 교수님, 행정팀 그리고 동문회에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그 외 가족분들과 다른 원우분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학위수여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학위증 수여, 공로상 시상, 원장님 훈화, 동문회장님 축사, 재학생/졸업생 송사,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되었고 공식 행사가 끝난 후 마지막은 개별적인 축하 메시지 전달 및 사진 촬영 등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원우들이 현직에 계시면서 동시에 학생의 신분으로 입학부터 졸업까지 5학기 동안 고생한 보람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심히 달려오셨을 모습을 생각하며 모든 졸업생 선배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다시 한 번 졸업 축하드립니다.

☀ 졸업생 명단 (28명)

관광 · 호텔경영전공 (17명)

위희연, 장형기, 강정은, 황서연, 조신영, 조성용, 신옥봉, 이치향, 김경옥, 김나영, 김수연, 김수용, 김정임, 김종필, 이경희, 조가은, 한혜림

융합관광전공 (6명)

주혜돈, 정윤정, 이현승, 김진용, 정현숙, 김창규

문화 · 엔터테인먼트관광전공 (5명)

홍순호, 박시현, 윤종현, 백영국, 조승현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날, 오후 7시 30분부터 이어서 학사 일정과 교내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36기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했던 때를 기억해보면 새로운 마음, 설레는 마

음을 가졌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번 신입생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겠죠? 대학원 입학하기 전 다짐했던 각오와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오셨다면 꼭 그 꿈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5일 진행될 신입생 입학식 및 환영회에도 많은 참석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편집부 뉴스레터도 입학식에서 같이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대학원 진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길 바라며, 입학 축하드립니다.

☀ 신입생 명단 (16명)

관광 · 호텔경영전공 (11명)

김기학, 김승미, 김인애, 김희재, 박창진, 박혜숙, 양종대, 이윤영, 정재진, 주혜림, 최성실

융합관광전공 (3명)

유 루, 김영아, 최형준

문화 · 엔터테인먼트관광전공 (2명)

연보신, 정지윤

☺ 졸업 &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PHOTO



#졸업식#입학식#축하#국관원

2. 추계 해외답사 미리보기 - 일본 '북큐슈' 2박 3일

글/구성 33기 심요섭

안녕하세요. 33기 심요섭입니다. 여름방학은 즐겁게 보내셨나요? 만약 방학 때 제대로 휴가를 즐기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가을 해외답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 까지 일본 북큐슈 지역을 답사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해외답사 일정에 대해 한번 미리보기 해볼까요?

☀ 1일차 일정 하이라이트 ☀

- 후쿠오카 이문화 탐방 (다자이후텐만구)
- 구마모토현 츠에타테온천 즐기기 (호텔 투숙)



▲ 다자이후텐만구 (사진 출처: 클리2.0)

첫날은 항공편으로 후쿠오카 도착 후, '학문의 신'으로 유명한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모시는 '다자이후텐만구'로 이동합니다. 스가와라의 유해를 소달구지에 싣고 가던 중, 소가 움직이지 않아 그 자리에 매장한 것이 이 신사의 건립 역사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좋은 대학에 합격한다는 소문이 내려오면서 해마다 약 700만명의 일본인이 참배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원우 여러분의 원만한 대학원 졸업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 2일차 일정 하이라이트 ☀

- 유후인 관광 & 벳푸 이문화 탐방

다음 날 오전, 아기자기한 거리와 온천·료칸으로 유명한 '유후인'으로 향합니다. 유후인의 대표 명소라고 할 수 있는 전통거리, 긴린코 호수를 둘러보고 유후인 역 앞에서 따뜻한 온천물에 족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큐슈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온천지역인 '벳푸'로 이동합니다. 벳푸는 지옥온천으로도 유명한데, 이번 일정에서 '바다지옥'이라고 불리는 1곳을 방문하고 '다카사키야마 자연동물원'을 방문해 원숭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벳푸 온천은 유황온천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유노하나 유황재배지'를 찾아 유황 채굴 및 유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후인 긴린코 풍경 (사진 출처: 소쿠리패스)

☀ 3일차 일정 하이라이트 ☀

- 후쿠오카 시내 관광 & 아사히맥주 하카타공장 견학



▲ 아사히맥주 공장 (사진 출처: KYUSHU STYLE)

벳푸 일정을 마치면 후쿠오카까지 약 2시간 동안 이동하고 저녁 식사 후 호텔로 이동하면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아침 식사 후, 오전에는 후쿠오카 시내를 구경하게 됩니다. 후쿠오카 시내에 위치하여 바다와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하카타 포트타워', 인공 해변으로 유명한 '씨사이드 모모치'를 견학하고, 사무실과 호텔, 쇼핑몰, 극장 등 복합시설로 구성된 '캐널시티 하카타' 혹은 후쿠오카 변화가인 '텐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나른한 오후에 시원한 맥주 어떠세요? 저희 답사 일정에 '아사히맥주 하카타 공장' 견학 일정이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견학을 하면 맛있는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데요.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아쉬움을 뒤로하며 공항가기 전, 대형 쇼핑센터인 '이온몰'을 방문하여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각종 생활용품과 미용용품 등을 구매하면 좋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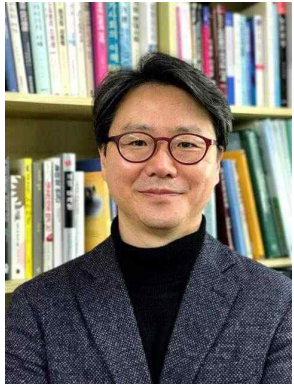
자, 여러분! 맛있는 음식과 재미난 볼거리, 그리고 따뜻한 온천... 두근두근 거리지 않나요? 원우들과 즐거운 추억까지 쌓으면 일석이조겠죠? 우리 함께 일본 북큐슈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기로 약속해요 :)

3. 교수님 인터뷰 코너 - 이훈 교수님

글/구성 34기 박경현

안녕하세요. 여름방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9월 개강이 다가왔습니다. 원우님들 모두 만족스러운 여름방학을 보내셨나요? 새롭게 시작 된 2학기엔 지난 1학기 보다 더 뜻 깊고 이루는 것이 많은 한 학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방학 때 문화·엔터테인먼트 관광학과 주임 교수님이자 관광 연구 소장님으로 부임하고 계신 이훈 교수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이훈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이훈 교수님과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은 잘 보내셨어요? 작년까지 안식년이였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교수들은 안식년을 통해서 그 다음 10년을 어떤 연구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가? 또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기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연구의 아이টে를 찾는 시간을 주로 보내요. 저는 첫 번째 안식년 땐 미국으로 가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좋은 연구 주제를 찾고 연구했었는데, 이번 두 번째 안식년은 주로 국내에 있으면서 우리 관광 분야의 서적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철학이나 역사책들을 읽으면서 한 발 물러나서 관광이라는 현상을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학기 중이어서 못 갔던 해외 축제들도 체험하고 에든버러, 아비뇽 페스티벌, 태국의 송크란 축제도 갔었죠. 또 동유럽 같은 여행하지 못했던 곳들도 다니며 여러 문화를 접하면서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보냈어요. 포럼도 많이 참여하고 또 의정부 음악극 축제의 총 감독을 맡고 있어서 축제 준비도 열심히 했어요. 관광 연구 소장은 계속 하던 일이기 때문에 저와 다른 교수님 또는 연구원들과 같이 여러 프로젝트도 많이 했죠!

※ 안식년이라고 해서 마냥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더 노력하셨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수님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보니 '유커(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빈자리'에 관련된 기사가 많던데 현재까지도 중국인 관광객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중국인 관광객은 60% 정도 줄어든 상황이에요. 관광 총량으로는 30-40%가 줄어든 거구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은 여전히 심각하죠. 한국 여행을 하려는 단체 관광객 수를 줄이고 전세기를 허가하지 않고 여행사를 통한 개별 관광객까지 항공권 구매와 비자를 받기 어렵게 함으로써 전 방위로 한국행을 막고 있죠. 현재 방한하는 중국인들은 여행사를 통해 개인 비자로 오는 여행객이 아닌 자신이 직접 비자나 여권을 발행하는 사람들이랍니다.

※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유커로 붐비던 명동, 남대문이 여름 휴가철 초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한국이 자처한 '인과응보'라고 보는 시선도 많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은 경제적 교류 이전에 문화교류, 인간교류예요. 교류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개방화시키고 글로벌화시킬 수 있죠. 관광이 가지고 있는 영향들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세계 문화를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되거든요. 문화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좋은 기세가 관광이죠. 하지만 그 중에는 관광객들 뜨내기로 생각해서 과도한 요금을 부여한다던지 낮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던지

좋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그건 아주 작은 일부지만 나쁜 소문이 더 크고 빨리 퍼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나쁜 이미지는 훨씬 더 크죠. 이미지는 그 국가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하는데 향후에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 공정하게 대하는 성향이 필요해요. 또한 그동안 한국이 중국인의 관광객에만 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장기적으로는 먼저 외래 관광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해요. 잠재력 있는 동남아, 일본, 중동, 러시아 등 대규모 여행박람회 개최 등 관광마케팅을 강화하고 비자제도 완화를 추진해야 하죠. 또한 외래 관광객 표적시장도 변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양에서 질로 바뀌는 품질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래 체류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방 관광의 인프라와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 교수님 말씀처럼 방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중국인 외에 다른 나라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한국이 변화하고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관련 기사에서 '줄어든 유커 관광객을 한국인으로 채우자'라는 기사도 봤는데, 언제부턴가 한국 사람들은 휴가철에 무조건 외국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관광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내 관광이 약간 침체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문제가 지역의 경제 문제와 연결되고 있어요. 일본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써요. 그 전까지는 항상 무역수지에서 흑자가 커서 내국인을 내보내는 경향이 컸는데, 이제는 외국인은 데려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지속해왔어요. 해방 이후 '외화를 벌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식이다'해서 외래 관광객을 유치를 위해 국제관광정책을 써왔고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주된 정책의 기류를 형성해왔어요. 그러다보니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있기는 했지만, 주된 정책을 형성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다보니 지역이 국내 관광을 수용할만한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서울, 제주, 경주나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숙박을 비롯한 교통 등 수용태세가 좋지 못한 게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요. 특히 지역과 지역 사이의 대중교통체계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커요. 서울과 도시 위주의 관광이죠. 서울에서 다른 지역은 편하지만,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건 매우 힘들죠. 향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한국 관광에 대한 많은 정보와 가르침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수업을 듣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는 국제관광대학원 원우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방학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교류도 하면서 즐거운 가을학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4. 문(文)정부 관광정책을 살펴보다.

글/구성 35기 임재민

안녕하세요. 저는 35기 임재민입니다. 입학 후 두 번째 쓰는 기사로 저는 새로운 정부의 관광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각 정부마다 관광정책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업계 종사자로서 새 정부 관광 정책에 대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당 주제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합니다. 즐겁고 보람찬 새 학기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는 관광산업에 대한 공약이 별도로 소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탄핵 정국 수습이라는 당면 과제에 맞추어 부패, 비리 척결 등 이전 정부의 주요 문제점 해소와 안보, 복지 공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관광산업과 연관되어지는 공약은 ‘노동 환경 개선에 따른 근무 시간 단축’, ‘명절 고속도로 무료개방’과 ‘비무장지대 대성동마을 관광화’ 등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는 도종환 국회의원이 지명되었으며,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사진출처=도종환 더불어민주당의원 블로그>

문(文)대통령 취임 직후 관광 정책에 대한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정책 위원회를 통하여 소개 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 정부 관광정책의 핵심 기조는 “정책 수혜자인 민간인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협업체 규모와 운영방안 등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임되는 대로 관광 · 마이스 등 분야별 민간 협업체를 구성하고 정책 수립부터 시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구상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근로자 휴가권 보장 등 산업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계층 간 갈등이 예상되는 관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도록 해 기업 옥죄기 등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없애려는 포석이라는 의견입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관광분야 핵심 공약으로 관광복지사회 실현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로자 휴가권 보장, 노년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그리고 고령친화 실버관광 등 영유아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 전부터 근로자 유급연차휴가 보장, 정부와 기업이 휴

가비를 지원해주는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등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전 정부에서 시행 1년 만인 2014년 폐기한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하면서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정책 위원회 관계자는 “체크바캉스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월1회) 보장제도 등이 기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을 감안해 중견기업을 먼저 대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재원은 전체 정부예산 중 1.75%인 순수 문화재정 비중을 2%까지 늘려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봄 · 가을 여행주간 등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와 외래 관광객 시장 다변화 등 이전 정부 정책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들은 계속 이어가거나 확대한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 호텔, 관광버스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함과 동시에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지역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관광영향평가제도,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한 시설과 유물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국민관광신탁제도 등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문재인 정부 관광분야 주요 정책

여행이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	관광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노동자 휴가지원제(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합관광산업 육성
무장애(장애 없는) 관광환경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물류 기반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상대주기업 맞춤형 여행지원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및 여행상품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관광산업의 질적 경쟁력 강화	관광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개발 관광과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국가관광명소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관광명소 지정 및 집중 육성
외국어 안내체계, 교통편 제공 등 외국인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개발관광객에 최적화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광영향평가제도 및 국민관광신탁제도 도입



<사진출처=한국경제 기사>

새 정부, 새 대통령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여행업계는 어떤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새 정부 출범일에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들은 진심어린 자신의 바람과 희망에 대해 답하였고 해당 설문조사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설문을 통해 인/아웃바운드, 국내 부문을 모두 아우르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부터 사소한 고객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들이 주관식으로 광범위한 의견이 모아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책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은 높지 않을 수 있는 점을 봤을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지각색의 의견 취합을 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관심을 쏟는 것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현실화하는 길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5. 2017년도 황금연휴에 가기 좋은 국내 여행지 <추석편>

글/구성 35기 이우석

☞ 2017년 10월 대망의 황금연휴 대비 국내 여행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35기 이우석입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방학은 알차게 잘 보내셨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원우분들께서는 본업에 더욱 충실 하시느라 방학을 제대로 즐기시기는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에게 추석 황금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연휴 잘 계획하셔서 꿀!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월 황금연휴 대비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제주도 켓물오름 - 비자림

최근 효리네 민박 7회에 나와서 검색 순위가 올라간 제주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켓물오름은 원래 노꼬메오름, 족은오름, 켓물오름 3개의 오름이 군을 이루고 있어 함께 이어지는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0월이면 제주도는 10월 초부터 은빛 억새가 물결치니 더욱 멋지겠죠?



켓물오름

비자림은 500~900년에 이르는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군락지예요. 단일 품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숲을 이루는 곳이지요. 고려시대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비자림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 374호로 지정되었어요. 최고령 나무는 900살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한 바퀴 둘러보는데 긴 코스가 약 1시간 20분 소요되며 경사가 완만하여 온가족이 함께 가도 좋다고 합니다.



비자림

☀ 전라도 완주 - 전주 - 군산

전라북도 완주의 고택 스테이로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새들의 지저귀음을 들으며 아침 맞이하고 약 20분 거리의 한옥마을에 들러 전통성당을 둘러보고 맛있는 전라도식 한정식 한상을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고택 스테이

오후에는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완주 삼례 문화예술촌에 들러보세요. 원래는 일제강점기의 양곡 창고와 관사로 수탈의 도구로 쓰이던 곳인데 뮤지엄, 목공소, 책 박물관 등으로 구성되어 예술촌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삼례 문화예술촌

같은 일정으로 약 한 시간 거리의 군산에 들어서 1930년대 근대 문화재들을 만나는 과거로 떠나는 여행을 즐겨보세요. 히로쓰가옥, 동국사 등과 같은 일본식 가옥과 사찰을 둘러보고 국내 3대 빵집인 이성당에 들러 그 유명한 단팥빵을 드셔 보는 건 어떨까요?



동국사

6. 승무원이 추천하는 가을에 가기 좋은 아시아나 취항지 - 홍콩

글/구성 35기 김하영

안녕하세요. 35기 김하영입니다. 무더운 여름방학은 잘 보내셨나요? 여름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극성수기를 피해서 9~10월로 미룬 직장인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뒤늦게 휴가를 계획하는 원우님들을 위해 주말을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가을 해외 여행지 : 홍콩** 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중경산림, 다크나이트 촬영지로 유명한 홍콩의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 입니다. 이곳에 가면 홍콩의 IFC몰, 소호거리 그리고 에그 타르트로 유명한 타이칭 베이커리까지 모두 즐길 수 있어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는 20개의 에스컬레이터와 3개의 무빙워크로 이루어진 세계 최장의 옥외 에스컬레이터라고 합니다. 특징은 오전 출근 시간대(6시-10시)와 그 외 시간대(10시20분-자정) 운행 방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전에는 출근시간이다 보니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고 그 외 시간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관광객들은 출근시간을 피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위로 올라가면서 홍콩의 언덕길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보면 홍콩의 전경을 생동감 있게 구경할 수 있고, 중간 중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마음에 드는 곳에 있으면 내려서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끝까지 올라간 다음 내려서 만모사원, 할리우드 로드 소호거리를 다 둘러보며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호거리

그렇다면 소호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에그타르트를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상호명은 타이칭 베이커리이며, 에크타르트 외에도 다른 제과를 팔긴 하지만 시그니처 메뉴인 에크타르트가 제일 잘 나갑니다. 가격은 1개당 8HKD이고 무조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답니다. 이 점이 아쉬운 분들은 타이칭 베이커리에서 에그 타르트를 테이크아웃 해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홍콩커피 브랜드인 PACIFIC COFFEE에 가서 맛있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즐기는 건 어떨까요?



타이칭 베이커리

홍콩의 낮을 즐기셨다면 이제는 밤을 즐기실 차례입니다. 홍콩의 야경은 여행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침사추이역 근처에 있는 스타의 거리로 가서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의 거리

매일 저녁 8시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레이저쇼는 홍콩의 바다와 고층 빌딩을 볼 수 있고, 침사추이 인근 해변 산책로를 걸으면서도 즐길 수 있으며 더 가까워서 홍콩의 야경을 즐기고자 하는 여행객들은 스타페리를 타고 만날 수 있습니다.

☀ 인천 - 홍콩 아시아나항공 스케줄

1) 인천 - 홍콩

- 운항요일 : 매일 운항
- 운항시간 : 09:00 / 10:00 / 19:50 / 20:10
- 운항편수 : OZ721 / OZ723 / OZ745 / OZ749

2) 홍콩 - 인천

- 운항요일 : 매일 운항, OZ724편만 월~목 운항
- 운항시간 : 00:30 / 00:50 / 13:10 / 13:40
- 운항편수 : OZ746 / OZ750 / OZ722 / OZ724

아직 휴가 못가신 원우님들! 주말을 이용해 다녀올 수 있는 홍콩으로 막바지 여름휴가 떠나는 건 어떠신가요?

7. <신서유기>와 함께 떠나는 대륙여행

글/구성 34기 왕홍소

작년부터 사드배치로 인해 한국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는가 하면 중국에 대한 반중감정 때문에 많은 한국인도 중국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드는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고, 국민간의 우정의 금이 가지 않았다'는 생각은 대부분이라서, 대륙여행은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륙만큼 가성비 높은 해외여행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핫'한 여행프로그램 <신서유기>에서 나왔던, 저도 실제로 가봤고 좋았던 3곳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 시즌1 - 서안편 (西安)

시안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중국의 3000년, 13왕조의 역사를 담은 곳입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화유적을 볼 수 있는 서안은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서안이라 하면 '세계 8대 기적'으로 꼽히는 병마용을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죠? 진시황제가 죽은 뒤 무려 70만 명 노동자를 불러 만들어진 지하에 있는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륙의 규모에 탄성도 나오겠지만 자세히 보면 병사의 하나하나의 크기, 복장, 자세, 살아있는 듯 한 표정까지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리고 병마용을 재밌게 구경을 하려면 아주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 스토리성 강한 이 관광지는 꼭 가이드의 해설을 들으면서 서안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이슬람 문화를 어울려져 탄생한 서안 최고의 먹자골목인 회족 거리는 소개합니다! 일 년 365일 어마어마한 인파로 붐비는 곳이지만 그만큼 맛있고 특별한 먹거리로 가득합니다. 특히, 러우자모, 파우모, 방방면과 랑피 이 4가지나 강추합니다! 밀 농사가 발달한 지역답게 국수, 빵 등 다양한 밀가루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즐겨 먹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 시즌2 - 성도편 (成都)

청두, 첸두라고도 불리는 성도에서 팬더는 1급으로 선정된 보호동물이자 중국의 국보입니다. 중국에서 전문적으로 팬더를 보호하기 위해 성도에 '팬더 기지'를 건립하였습니다. 성도 여행에서 팬더 기지를 꼭 가야하는 이유는 귀여운 팬더를 눈앞에서 가까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슬렁어슬렁 걷는 팬더를 따라가며, 한가하고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어서 힐링하는 느낌을 물씬 풍기기 때문입니다. 낙산 불상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 최대 불상으로 유람선을 타고 나가야만 불상의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가봐야 알겠지만 그 압도감은 상상을 초월하고 다시 한 번 대륙의 규모를 느끼게 되고 자연의 웅장함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관자이샹즈는 '넓고 좁은 골목'이라는 뜻으로 역시 문화 보호구역이자 한국의 인사동과 비슷한 느낌으로 성도만의 분위기와 옛 정서가 스며든 정통의 거리입니다. 거리에서 길거리음식, 기념품점, 술

집이 준비하여 화려하면서도 성도 고유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관자이샹즈에서 기념품 구매 팁을 드리자면 입구 쪽에 물려있는 상가에서 사는 것보다 참고 또 참고 길거리 안쪽으로 들어가 시장처럼 형성된 곳에서 사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 시즌3 - 하문편 (廈門)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여행지이지만, '중국 속에 지중해'라고 부르는 샤먼은 중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여행지입니다. 중국은 발음상으로 불리는 단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곳은 하문, 샤먼 등으로 불리웁니다. 그 중 '구랑위(鼓浪嶼)'를 가지 않으면 샤먼을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샤먼여행에서 구랑위는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구랑위는 '파도가 북을 치는 섬'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예술적인 가게들과 주황색 지붕의 건물들이 섬 안에 빼곡한 모습도 섬 이름만큼 아름답고 낭만적입니다. 중국의 젊은 커플들이 같이 다니고 싶은 여행지 1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신서유기>에서 인상 깊게 보았던 '토루(土樓)'입니다. 집성촌의 개념으로 거대한 일종의 전통적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보이는 토루에서 하루밤을 머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먼을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광둥 딤섬, 그리고 곳곳에 있는 망고디저트를 꼭 드셔보세요!!!^^

8. 명품 브랜드의 대표주자, 루이비통의 또 하나의 시도

글/구성 35기 오현정

안녕하세요. 저는 35기 오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번 기사의 신입 편집부원 인터뷰 코너에서 패션 관련 업종에서 근무했었던 내용을 담았었는데요. 패션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이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 시즌마다 수많은 인구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행사들에 참여하며 항공, 호텔 등 관광 상품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패션 관광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패션을 관광에 접목시키는 다른 관점을 통해 기사를 써보려고 합니다. 매년 많은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전시회, 박람회, 패션쇼, 패션위크 등을 통해서 한 해 유행할 패션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브랜드 중 루이비통 전시회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전시회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일본, 올해 세 번째인 루이비통 전시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기간은 2017년 6월 8일 ~ 8월 28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5월 14일부터 일본 교토 인근 시가현 미호박물관(Miho Museum)에서 루이비통 크루즈 컬렉션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패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가까운 이웃나라에 미리 계획을 짜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 · 루이비통 (Volez, Volez, Voyagez · Louis Vuitton)’



2017년 한국에서 열린 루이비통 전시회는 루이비통의 창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소장품 1,000여점을 총 10가지 테마로 재구성해 160년을 이어온 메종의 역사를 예술적이고 깊이 있게 전달하였고, 전시의 처음과 마지막은 ‘여행’이라는 테마로 장식되었습니다.

왜 루이비통은 여행이라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약 16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아우라의 기원 탐구를 통해 루이비통이 우리의 어떠한 욕망을 자극했는지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1821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루이비통 말레티에 (Louis Vuitton Malletier)는 14살 때 아버지의 재혼을 계기로 무작정 파리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는 파리에서 유명세를 떨치던 가방 제조 전문가 무슈 마레샬(Monsieur Marechal) 밑에서 일을 배우며 경력을 쌓았고, 섬세하게 짐을 꾸리는 기술로 귀족 사회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나폴레옹 3세 부인 유제니 황후의 전담 패커(Packer, 짐 꾸리는 사람)로 고용되고, 궁중에서 가방을 만드는 도제로 성장합니다. 그의 재능을 높이 산 황후의 후원으로 1854년 마침내 뤼뇌브 데 까푸신느 4번가에 163년 역사를 잇는 루이비통의 첫 매장이 이렇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최국인 한국을 위해 루이비통이 특별히 마련한 ‘예술적 영감의 나라, 한국’ 공간은 전시회의 백미를 장식하였습니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한국과 나란히 참여했던 인연을 재조명하는 의미에서 당시 대한제국이 출품했던 한국 전통 악기가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를 방문한 뒤 단지 루이비통의 Fashion, Leather Goods, Watch & Jewelry 등의 아이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으로 시작된 루이비통의 역사라는 스토리텔링을 잡고 또한 루이비통의 출신 배경과 히스토리를 루이비통의 제품들과 같이 체험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가치 있는 전시회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의 창조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업 철학 정신을 엿볼 수 있고 무엇보다 국제관광대학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여행이란 무엇인 가라는 주제를 누구든지 다양한 시각에 맞춰 바라볼 수 있는 정의를 루이비통의 브랜드와 제품으로 다시 한 번 정리 해볼 수 있는 좋은 전시회였다고 소개해봅니다.



#1. 2017년도 전기 국관원 활동 모음집



#2. 편집후기

구민희 / 3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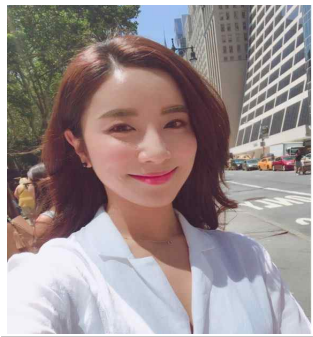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32기 구민희입니다! 저는 이번 기사를 마지막으로 편집하고, 새로운 학기부터는 심요섭 원우가 편집부장에 재임하게 됩니다. 부편집장으로 재임하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회의 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고 저보다 더 잘 편집부를 이끌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편집부원들도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입학과 졸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는데 저도 한 학기 후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졸업에 대해 미리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32기 동기 분들도 이번 학기 열심히 학업에 임하셔서 다 같이 졸업할 수 있기를! (저..도 졸업 할 수 있겠죠?^^;;) 이번 기사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편집부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 전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래에 신입 편집부원 모집 관련 내용도 있으니 신입생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심요섭 / 33기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33기 심요섭입니다. 저는 이번 방학 중 8월은 대부분 해외에서 보낸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생겨 라트비아에 다녀왔는데요. 현지 숙소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힘들긴 했지만, 주변 국가들도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저는 9월에 있을 해외답사를 소개해봤습니다! 스트레스 쌓인 심신을 달래 줄 음식과 온천만 생각해도 즐거운데요. 꼭 참여하셔서 동기, 선후배와 함께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입학한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즐겁고 알찬 대학원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박경현 / 34기



다들 여름방학은 잘 보내셨겠죠? 이번 기사를 쓰면서 입학하고 쓴 몇 번째 기사더라..라고 생각해야 할 만큼 국관원과 함께한 시간이 꽤 오래된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그저 빠르게만 지나가는 시간이 야속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감정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가을이란 계절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풍요로운 계절에 원우들 역시 더 깊이 있고, 많이 배워갈 수 있는 2학기가 되길 바랍니다!

왕홍소 / 34기



벌써 편집부에 들어와서 쓰는 세 번째 기사인데요. 지난 두 번 다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맡아서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을 얻어서 순조롭게 쓸 수 있었지만, 이번 기사는 혼자 글을 작성해야 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컸는데 기분 좋게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국관원 원우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실제로 가본, 그리고 진심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을 소개했어요. 아주 만족스럽고 뿌듯합니다!

임재민 / 35기



이번 가을호의 주제를 고민하면서 새 정부의 관광 정책으로 결정하여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는 것과 신임 내각 인사 등에 치우쳐 아직 이렇다 할 정책과 방향이 발표되지 않아 다루기에

미흡하였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내용으로 다음 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람된 가을 학기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우석 / 35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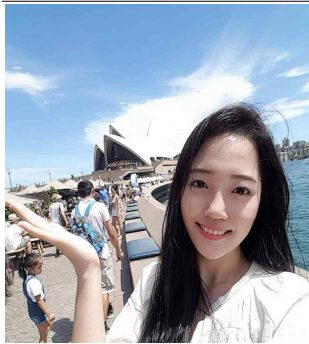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35기 이우석입니다. 두 번째 저의 기사는 어떻게 읽어보셨나요? 제가 가본 국내 여행지와 최근 미디어에 노출되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여행지 중심으로 기사를 써보았는데, 저의 기사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에도 즐거운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현정 / 35기



두 번째 학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를 쓸지 고민을 많이 하고 또한 관광이라는 테마에 맞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많이 부족한 느낌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 기사를 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 / 35기



신입부원이 되고 첫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설렘도 있고 다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녀본 나라를 직접 소개하고 원우님들과 공유할 수 있었던 기사라 의미가 깊습니다. 편집부원으로서 짧게나마 기사로 원우님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집부원이 되길 참 잘했구나.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신입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인원 : 00명

☑ 모 집 일 : 2017년 9월 5일 ~ 9월 16일까지

☑ 문 의 : 심요섭 편집부장 (010.9932.2215)

☑ 기 타 : 소정의 장학금 지급됩니다.

- 평소 글쓰기에 관심이 많거나 학교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한사항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